

名前：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신문과 잡지의 발행부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앞으로도 신문과 잡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터넷 자료는 영원히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한순간에 모든 자료가 사라져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으로는 신용할 수 없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파일의 내용은 누구라도 마음대로 조작해서 진짜 뉴스인 것처럼 하는 것이 간단하고, 옳지 않은 정보와 돌아다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보아의 팬사이트에서 "보아의 새 앨범"이란 제목이 있어 클릭해봤더니 어떤 팬이 만든 가짜소식이었습니다. 일본적이지는 않은 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믿어버릴만큼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눈갔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실제 종이를 가지고 보는 편이 개인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터로 기사를 읽는 것보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편이 집중할 수 있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믿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소중히~~ 소중히 모아두고 싶은 자료는 자기 손으로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인터넷과 신문과 잡지는 공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영역에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해 무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e-book이란 것이 나와서 더는 아무도 책을 사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소문과 예측이 많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평범하게 책을 사서 읽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00字